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비즈니스 장비 주문 늘었지만 모든 내구재 주문은 줄어
- NYT: 연준 인플레이 목표 2%를 더 올려야 하나?

[미국 금융]

- CNN Business: 은행 위기가 모기지율에 주는 여파는?

[미국 생활]

- WSJ: 불안한 자녀 미래... 침체된 경제와 교육 신뢰부족 탓
- Bloomberg: 바이든 '미국인 인터넷 보급' 목표...외국산 부품없어 쉽지않아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LG 에너지, 애리조나에 56억 불 규모의 배터리 시설 건설
- Bloomberg: 일자리 줄어도 기술직은 시간당 1백20불
- Bloomberg: 원격근무로 작은 도시로 간 직원들,해고 탓에 도전 직면
- WSJ: Accenture, 1만9천명 해고... IT 지출 축소 탓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Business Equipment Orders Rise While Broader Durable Goods Decline

비즈니스 장비 주문 늘었지만 모든 내구재 주문은 줄어

- 2월에 예상외로 모든 내구재 품목의 주문은 줄었다. 비즈니스 장비 주문 수요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 내구재는 3년 이상 사용하는 품목인데 1월에 5% 수요가 줄었고, 2월에도 1% 줄었다고 오늘 금요일 연방상무부는 밝혔다. 단, 교통장비를 제외한 내구재 주문은 변동이 없었다.
- 항공기와 군사 장비를 제외한 장비 투자를 가늠하는 핵심 자본재 가격 가치는 1월에 0.3% 늘어난데 이어 2월에도 0.2% 늘었다.
- 한마디로 기업들의 신용 경색으로 투자가 줄어드는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

Bloomberg 기사

NYT 칼럼: The Fed Has Targeted 2% Inflation. Should It Aim Higher? By Jeff Sommer

연준 인플레이 목표 2%를 더 올려야 하나?

- 예전에는 연준이 인플레이 목표 수치를 정하지 않았다. 그린스펀 의장이 이를 대신에 물가안정이 목표라고 했을 때 당시 유명한 경제학자이며 연준 관리였던 제닛 옐런 현 재무장관이 그린스펀 의장에게 “물가 안정을 측정하는 정확한 숫자를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2012년에 연준은 공식적으로 경제와 인플레이 전망을 보여주는 ‘포워드 가이드’ 정책을 사용하면서 2% 목표제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근에는 정확하게 2%가 아니라 평균 2% 목표제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MIT 대학의 Olivier Blanchard 교수 등은 인플레이 목표를 3% 또는 4%로 상향 조정하기를 요구했다. 연준이 인플레이를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낮은 목표일 경우 실직자가 많아지는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일부에서는 연준이 매 5년마다 장기적인 전략적인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현재의 ‘평균 2% 물가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NYT 기사

[미국 금융]

CNN Business: What the banking crisis means for mortgage rates 은행 위기가 모기지율에 주는 여파는?

- 모기지율의 변동은 연준 정책과 은행 혼란 때문만이 아니다.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과 현재 가시적인 불안정성 뿐만 아니라 연준의 예상 조치 등도 간접적인 여파를 줄 수 있다.
- 최근에는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모기지율이 같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더 많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저당증권과 같은 장기투자물을 팔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
- 특히 연준 긴축에 따른 인플레이 둔화 조짐으로 모기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30년 고정 모기지율이 금년말에 5.3%로 떨어질 것이라고 모기지은행협회(Mortgage Bankers Association)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CNN Business 기사

[미국 생활]

WSJ: Most Americans Doubt Their Children Will Be Better Off, **WSJ-NORC Poll Finds** 불안한 자녀 미래... 침체된 경제와 교육 신뢰부족 탓

- Wall Street Journal와 NORC의 공동 여론 조사에 따르면 압도적인 비율의 미국인들이 자녀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 확신하지 못한다고 했다. 인플레이와 관련한 경제와 대학 학위 등 교육의 질에 힘에 대한 신뢰 부족 믿음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 시카고대의 NOR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44%인 다수의 응답자들은 자신의 재정 상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 수치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 또한 미국인들에게 ‘자녀 세대의 삶이 자신의 삶보다 더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78%가 자신 없다고 답변했고, 이는 1990년 이 질문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말했다.
- 설문 응답자의 약 56%는 특별히 얻는 것 없이 빚만 지고 졸업한다며 4년제 대학 학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2017년과 정반대의 결과였다.

WSJ 기사

Bloomberg: Biden Broadband Plan Runs Headlong Into Buy America Mandate

바이든의 ‘모든 가구에 인터넷 보급’ 목표.... 외국산 부품없어 쉽지 않아

-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두교서에서 분명히 밝혔다. 수백억불 규모의 브로드 밴드 연결 정책을 위해 ‘미국산’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내 각 지역을 연결시키는 광통신 연결 케이블은 충분할 지 모르지만 문제점이 있다. 글라스 스트랜드(가닥, 줄)을 데이터 전송시키도록 변환시키는 라우터와 같은 전자제품들은 주로 외국에서 제조되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미국 회사들인 케이블 제공업체, 반도체 생산업체, 무선 통신사들은 “외국산 관련 전자 제품없이 새로운 인터넷 네트워크를 만들수가 없다며 ‘미국산을 구입하라’은 정부정책을 완화해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인터넷 광대역 구축에 필요한 미국내 생산은 수년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South Korea's LG Energy to Build \$5.6 Billion Battery Plant in Arizona

LG 에너지, 애리조나에 56억 불 규모의 배터리 시설 건설

- LG 에너지는 애리조나에 56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것이며, 이 곳은 주로 북미의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56억 달러는 지난 해 공장 건설에 대한 계획을 처음 발표했을 때 말했던 금액의 약 4배정도 된다.
- LG 에너지는 녹색 기술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현지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에 더 큰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아리조나에 지어질 단지는 두 개의 배터리 공장으로 구성될 것이다. 그 중 하나는 27기가와트 시간의 생산 능력을 가진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이며, 이에 약 3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장조사업체 SNE Research에 따르면 중국의 CATL을 제외하고 LG에너지는 지난해 판매 기준으로 EV와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 시장을 합쳐 21%를 차지하는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이다.

WSJ 기사

Bloomberg: A Tech Job Still Pays \$120 an Hour Despite Mass Layoffs 일자리 줄어도 기술직은 시간당 1백20불

- 기술직 대량 해고로 미국 전체에 현재 30만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기업들의 핵심적인 관련 기술직은 여전히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관련 계약직은 평균 시간당 1백30불을 받고 있다.
- 기술 분야는 미국 국내총생산의 약 6%를 차지하며, 평균 임금은 일반적인 미국 근로자의 거의 두 배이다.
- 앞으로 몇 년동안 기술 산업은 미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이 부문은 현재 S&P 500 지수에서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10년 전의 18%보다 증가한 비중이다.
- 작년 중반에 시작된 대규모 해고에도 불구하고 총 기술직 일자리는 팬데믹 이전보다 약 7%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Zoom Towns' Exploded in the Work-From-Home Era. Now New Residents Are Facing Layoffs 원격근무로 작은 도시로 간 직원들, 해고 탓에 새로운 도전 직면

- 재택 근무는 코로나 19 대유행 기간동안 활발히 이루어졌고, 재택 근무 근로자에게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었다.
- 원격으로 하는 재택 근무는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라 사라지기 시작했고, 기술 및 금융 중심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한 근로자는 새로운 근로 영역에 발을 들이게 됐다.
- 예를 들어 거주한 곳에서 가까운 직장으로 옮겨 봉급이 줄었어도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모습 등을 보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Accenture to Cut 19,000 Jobs as IT Spending Slows Accenture, 1만9천명 해고... IT 지출 축소 탓

- Accenture PLC는 IT 지출이 둔화됨에 따라 회사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을 간소화하기 위해 향후 18개월 동안 인력의 2.5%인 약 19,000명을 감축할 것이라 밝혔다.
- 이 회사는 올해 매출 성장률 전망을 기존 예상치인 8~11%에서 8~10%로 하향 조정했다.
- IT 컨설팅 및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업체인 Cognizant Technology Solutions Corporation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및 기술 그룹의 매출이 9% 증가한 반면, 2월 분기 수익 성장 둔화를 보고했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재무 "은행 예금 보호 위한 추가 조치 취할 준비돼 있다"

"하원 세출위원회 소위 출석...예금 보호 방침 재확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파산 사태 이후 금융 시장 불안과 관련, 추가 조치에 대해 준비돼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 "우리는 사태 확산을 조속히 막기 위해 중요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들은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도 있는 수단들"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우리가 취한 강력한 조치들로 미국인의 예금은 안전하다는 확신을 줬다"며 "확실히 우리는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